

가상 훈련장비 개발회사 '도담시스템스'

| 편성설 |

도담시스템스 DoDaam Systems(Digital Oriented Development Application and Manufacturing)은 지난 7월 10일에 공식적인 현판식을 가진 한국항공우주산업(주)(이하 KAI)의 벤처회사 이름이다. KAI의 시뮬레이터 개발 기술을 바탕으로 설립된 가상 훈련 장비 특화업체라고 하는데 회사 이름이 좀 낯설다.

「도담도담」부어린애가 탈없이 잘 자라는 모양'사전을 찾았더니 순수 우리말의 부사라는 설명이 있다. '탈없이 잘 자라는' 신생 벤처회사의 이름으로 참으로 걸맞는 이름이다.

무얼 하는 곳일까?

도담은 지난 6월 10일 모 회사인 KAI에서 분리되어 자회사 개념의 가상 훈련 장비 전문특화 업체로 설립되었다. 지금까지 KAI에서 수행하던 국산 전투기 제작 사업과 T-50 고등훈련기 개발경험을 바탕으로 차세대 한국형 고등훈련기의 항공기 자동시험, 정비지원장비, 항공기 운

용 시뮬레이터 및 민수용 시뮬레이터를 개발 생산하게 된다.

앞으로 KAI에서는 항공기 개발 산업에 주력하고, 소프트웨어를 중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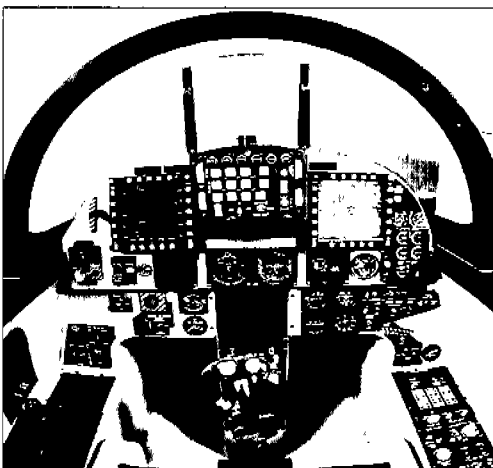
으로 특화 되어 개발하는 업무는 도담이 전담해 사업영역 확대에 따른 상호보완적 협력체제를 구축할 것이라고 한다.

KAI의 출자와 해외자본유치로 설립된 도담은 23명의 엔지니어와 재무인력 3명이 뭉쳐 탄생되었다. 이들은 자신들의 손으로 개발한 기술로써 한국의 항공산업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21세기의 항공산업의 발전을 주도해 나갈 것이라는 야심찬 포부를 가진 사람들이다.

생산 품목은 가상 훈련장비로, 항공기/ 군납 물자 조종 시뮬레이터에 관련된 제품을 생산한다. 특히 항공기 자동시험장비 제작 및 판매업, 3차원 영상응용제품 제작 및 판매업 등 첨단 기술분야에 주력하고 있다.

지금까지 실제 장비를 사용한 기동 훈련에서는 각종 민원과 과도한 비용발생 등의 문제가 제기되곤 했다. 하지만 시뮬레이터를 이용하면 신세대 조종사들에게 보다 과학적인 교육훈련을 제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실제장비 기동 훈련에서의 문제사항도 발생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그러나 KAI에서 현재 개발중인 T-50의 보조장치인 자동시험장비나 휴대용보조시험장비 등을 해외선진 업체에서 직구매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기술소유권' 획득은 불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추후 양산시에도 계속적인 기술중속상태로 묶여 버리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 21세기 10대 항공업체 진입 및 항공기술 국산화라는 큰 목적을 달성하



기 위해 도담이라는 전문업체가 생겨나 특화된 제품을 생산하게 된 것이다.

이쯤에서 이 회사의 생산품이 무엇인지 조금 더 깊게 알아보는 것이 좋겠다. 도담은 KAI 시절인 98년에 K-55 자주포 조종 시뮬레이터 시제품을 성공적으로 개발 납품하여 이미 기술력을 인증 받은 바 있다. K-55 조종 시뮬레이터는 시뮬레이션 컴퓨터가 제공하는 다양한 가상환경(시간, 기상, 계절 등)하에서 기본적인 조종훈련에서부터 고난도의 전투조종훈련까지 마치 실제 장비로 훈련하는 것과 같은 다양한 훈련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것이다.

미스트랄 전술 훈련 시뮬레이터는 3차원 시뮬레이션 기술과 가상현실 기술을 이용한 휴대용 유도탄의 추적 실습, 표적 식별, 야간 추적 등의 모의훈련 장비로서, 3차원 영상으로 구현된 실제적이고 생동감 있는 훈련을 할 수 있는 제품이다.

이 외에도 T-50의 비행훈련 장비와 정비 훈련장비, 조종성 평가 시뮬레이터 등을 개발해 실제와 같은 체험을 할 수 있는 제품들을 생산해 내고 있다.

앞으로는 어떻게?

지금 이 시간에도 국군은 도담에서 개발 납품한 시뮬레이터를 통해 실제와 동일한 상황의 훈련을 수행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는 시뮬레이터 개발 기술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것과 다른 없는 것으로 앞으로 도담이 한국군의 전력 향상을 위한 사업에 동참하는 모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도담은 경제적 자립기반을 확보하고 개발 투자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군 시뮬레이터 개발기술을 민수용으로 전환, 단계적으로 민수시장의 비중을 확대할 것을 구상하고 있다.



F-5용 시뮬레이터

지금까지 시뮬레이터는 군사 및 특수목적의 훈련 용도로만 사용되어 그 시장이 매우 제한적이었다. 게다가 개발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첨단 산업이었다. 그러나 80년대 후반부터 시뮬레이터를 구성하는 컴퓨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급격한 성능 향상으로 민간분야에서의 시뮬레이션 기술개발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현재에 이르러서는 전 산업분야에 걸쳐 활용되고 있는 첨단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다.

특히 컴퓨터 네트워크 기술과 3차원 그래픽 기술에 기반을 둔 가상현실 기술의 급격한 발전은 그 동안 단일 장비 훈련 위주로 사용되었던 시뮬레이터를 다양한 전투자원이 상호 연동되는 동일한 가상환경 속에서 동시에 전술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형태의 분산 능동형 시뮬레이터(Distributed Interactive Simulation) 시장을 창조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 기반을 바탕으로 도담은 그동안 수행해온 군 시뮬레이터 사업을 강화하고, 미래 산업으로서의 민수용 시뮬레이터 시장에서도 세계적인 시뮬레이터 전문기업으로 성장해 나아갈 것이다. ☉